

# “동네방네 책도 많네요”

## 한국지역출판문화잡지연대, 국내 최초 전국 규모 ‘2017제주한국지역도서전’

5월 25~29일 한라도서관·카페  
광주 전라도닷컴·심미안 등  
전국 30여개 출판사 참여  
지역출판 활성화 모색 나서  
공선옥 작가 등 북카페 강연도



한국지역출판문화잡지연대는 오는 5월 제주에서 지역도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최초 전국 규모 지역도서전을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제주에서 개최된 창립 총회 및 기념 세미나 모습. <한국지역출판문화잡지연대 제공>

갑수목 문화산업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장르를 불문하고 지역의 문화 콘텐츠는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르 가운데 지역 출판과 문화잡지들은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는 보루와 같다.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고 전통을 보존, 계승하며 새로운 문화 창조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역출판은 당대의 기록, 후대에 전할 역사의 완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역출판은 존폐의 기로에 놓일 만큼 사정이 녹록치 않다.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역문화를 창출한다는 사명감만으로 버티기에는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전국 각지의 책을 한자리에 전시하고, 책과 독자의 만남의 장이 마련돼 관심을 끈다.

한국지역출판문화잡지연대(이하 한지연·대표 황종년)는 오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제주 한라도서관과 제주도내 카페 등지에서 ‘2017제주한국지역도서전’을 개최한다. 지역도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최초 전국 규모 지역도서전이다.

‘동차기 서차기 책도 잘도 하우다(동네방네 책도 많네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도서전은 지역출판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독서 분위기 진작 등 지역출판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도서전은 지역별 책을 모은 ‘지역도서전’, 개최지 제주와 관련된 ‘4·3특별전’, ‘지역대학출판전’, ‘문화잡지전’, ‘여행도서전’, ‘판매도서전’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다.

도서전에는 ‘전라도닷컴’·‘심미안’(광주), ‘해리’(고창), ‘산지니’·‘해상’(부산), ‘대구’(학이사), ‘월간도마토’(대전), ‘사이드’(수원), ‘직지’(청주), ‘남해의 봄날’(통영), ‘필복스’(진주), ‘각’(제주) 등 모두 30여개의 출판사가 참여한다.

특히 한지연은 도서전을 기념하기 위해 출판사별 기념도서를 제작 발간한다. 소요되는 예산은 기업후원과 개인 후원을 통해 조달하는데 참여를 원하는 독자들을 위해 ‘온 나라 진행책들의 한마당’이라는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다음 스토리펀딩(storyfunding.daum.net/project/13681)에 출판사들이 자사 소개, 지역 출

판 동향, 출간한 책 등을 소개하는 글을 올리면 독자들이 선택해서 후원하는 방식이다. 연재기간은 4월 24일까지며, 펀딩기간은 4월 25일까지다.

이밖에도 눈길을 끄는 주요 프로그램도 적지 않다. 지역 출판인이 독자 및 대중과 다른 지역 출판인을 상대로 발언할 수 있는 ‘출판인 발언대 5분 스피치’, 지역의 사투리가 보존돼 있는 글을 해당 사투리로 낭독하는 ‘팔도책 낭독회’가 있다. 또한 공선옥 작가와 함께하는 ‘작가 초청 특별강연회’, 송광룡 심미안 대표 등 지역 출판인이 북카페에서 강연하며 독자를 만나 ‘북카페 강연’ 등도 펼쳐진다.

한국출판학회와 함께 지역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심포지엄도 예정돼 있다. 5월 26일(오후 3시) 한라도서관 강당(지하1층)에서 강수결 부산 ‘산지니’ 대표의 ‘송인서적 부도사태로 본 한국

출판의 유통문제...’ 발제를 시작으로 토론회가 열린다.

한편 한지연은 지역도서전 개최와 함께 한국지역출판대상도 공모한다. 지역 소재 출판사(서울시와 파주출판단지 소재 제외)가 지난 2016년 발행한 도서를 대상으로 한다(발행일 기준 2016년 1월 1일~12월 31일). 선정 기준은 ▲지역 관련성, ▲작품 우수성, ▲출판문화 기여 정도이다. 특히 지역 소재 출판사가 아니고는 발행할 수 없는 책들에 의미가 부여된다.

공모 신청 마감은 오는 7일까지이며 1사 3종 이내, 총별 3권씩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한국지역도서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상식은 지역도서전 개최기간인 5월 27일 한라도서관에서 있을 예정이다.

문의 064-748-5885.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매월 둘째 화요일엔 예술의 전당 ‘11시 콘서트’

### 광주문화재단·강진아트홀 6일 첫 생중계...무료 예약



피아니스트 조재혁

이들에게 친숙한 피아니스트 조재혁이다.

첫 공연은 6일 오전 11시 ‘벨르’(Belle)를 주제로 열린다. 여나경이 지휘하는 코리아

올해 13번째 시즌을 맞는 예술의 전당의 ‘11시 콘서트’(5월부터는 매월 두 번째주 화요일)는 국내 마티네(오전이나 낮에 열리는 공연) 콘서트의 원조격으로 꼽히는 행사다. 오전 11시, 느긋한 시간에 라이브로 음악회를 감상하고 커피와 간단한 브런치로 요가까지 해결하는 기쁨은 이후 전국적인 유행이 됐다.

예술의 전당이 올해부터 지역 문예회관 및 영화관 등 10곳에서 ‘11시 콘서트’를 무료로 생중계하는 계획을 시작한다. 예술의전당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진행해온 공연 영상화 사업 ‘작은 스크린(SAC on SCREEN)’의 일환으로 지역에서는 광주문화재단 빛고를 아트스페이스와 강진아트홀에서 열린다.

올해 공연의 길라잡이는 KBS FM ‘가정음악실’의 래저 콘서트로 많은

콥오케스트라가 함께 하며 피아니스트 이미연, 바이올리니스트 임동민 등의 연주가 펼쳐진다. 레퍼토리는 요나손의 ‘빠곡 왈츠’, 라벨의 ‘썩간느’, 알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 프록코피에프의 ‘피아노협주곡 제2번 g단조 Op.16 1·2악장’, 라흐마니노프 ‘보컬리제’ 등이다.

이어 5월 11일에는 ‘폴로네즈’를 주제로 피아니스트 정재원과 비올리니스트 이한나가 함께하며 6월 8일에는 ‘오리엔탈 판타지’를 주제로 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지휘 이종진)가 연주한다.

무료로 진행되며 전화로 예매하면 된다. 광주문화재단 062-670-79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여쭙어보다’ ‘주책맞다’ ‘그저참’ 표준어 됐다

### 국립국어원, 34건 수정

‘여쭙어보다’의 높임말인 ‘여쭙어보다’와 ‘주책맞다’와 동의어인 ‘주책스럽다’도 나란히 표준어로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그저참’, ‘아침내’, ‘동주민센터’, ‘분리배출’이 새롭게 표준어가 됐다. 접미사인 ‘상’의 뜻풀이에는 물체의 위나 위쪽을 이르는 말도 추가돼 ‘지구상’, ‘지도상’, ‘직선상’이라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접미사 ‘하’도 아래 또는 아래쪽이나 밑이라는 뜻풀이가 더해져 ‘교각하’, ‘선반하’의 붙여쓰기가 허용됐다.

‘여쭙다’와 ‘여쭙는다’는 표준어였으나, ‘여쭙어보다’는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아 ‘여쭙어 보다’처럼 띄어 써야 했다. 또 ‘주책맞다’는 지난 1월 ‘주책이다’가 ‘주책맞다’와 같은 의미의 표준어로 등재되면서 이번에 함께 표준어로 이름을 올렸다.

‘여쭙어보다’의 준말인 ‘여쭙보다’와 ‘주책맞다’와 동의어인 ‘주책스럽다’도 나란히 표준어로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그저참’, ‘아침내’, ‘동주민센터’, ‘분리배출’이 새롭게 표준어가 됐다. 접미사인 ‘상’의 뜻풀이에는 물체의 위나 위쪽을 이르는 말도 추가돼 ‘지구상’, ‘지도상’, ‘직선상’이라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접미사 ‘하’도 아래 또는 아래쪽이나 밑이라는 뜻풀이가 더해져 ‘교각하’, ‘선반하’의 붙여쓰기가 허용됐다.

‘여쭙다’와 ‘여쭙는다’는 표준어였으나, ‘여쭙어보다’는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아 ‘여쭙어 보다’처럼 띄어 써야 했다. 또 ‘주책맞다’는 지난 1월 ‘주책이다’가 ‘주책맞다’와 같은 의미의 표준어로 등재되면서 이번에 함께 표준어로 이름을 올렸다.

## 하이든 챔버 앙상블 광주 공연

### 14일 문화전당 예술극장 2

### 오늘 오전 10시부터 입장권 무료 예약

오스트리아 하이든 챔버 앙상블 초청 공연이 오는 14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열린다. 피아니스트 루카 몬티, 바이올리니스트 코르넬리아 로셔, 첼리스트 하네스 그라트볼로 구성된 하이든 챔버 앙상블은 2013년 창단된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와 빈을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그룹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하이든과 동시대 작곡가들의 작품을 주로 연주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하이

든, 슈베르트, 모차르트 등을 선택했다. 레퍼토리는 하이든 ‘피아노 3중주 다장조’, 슈베르트 ‘피아노 3중주 소나타 세트 내림 나 장조’, 슈베르트 ‘피아노 3중주 아상곡 내림 마장조’, 도데리의 ‘피아노 3중주 5번’, 모차르트 ‘피아노 3중주 내림 나 장조’ 등이다. 한국·오스트리아 외교 관계 수립 125주년 기념으로 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국제교류센터, 주한오스트리아 대사관이 함께 기획했다. 4일 오전 10시부터 1인 4매까지 입장권을 무료로 예약할 수 있다.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사전 예약하면 당일 전자순서로 좌석을 교환해준다. 문의 1899-55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하루키 ‘기사단장 죽이기’ 문학동네서 6~7월 출간

무라카미 하루키가 7년 만에 펴낸 본격 장편소설 ‘기사단장 죽이기’의 국내 판권이 문학동네에 들어갔다. 문학동네 측은 지난 31일 하루키의 일본 에이전시로부터 한국어판 판권 계약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번역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오는 6월~7월 사이에 출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루키의 신작이 나올 때마다 논란

이 일었던 선인제는 앞서 문학동네가 펴낸 ‘IQ84’와 비슷한 1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당시 문학동네는 ‘IQ84’ (2009~2010)를 출간해 200만 부 가량 판매고를 올리는 성공을 거뒀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